

##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4.08.01~24.08.31)

### □ 2개 지역거주나 이주 등의 촉진 대책 지원 [8/6]

- 2개 지역거주란 주 생활거점과는 별도로 특정 지역의 생활 거점(호텔 등을 포함)을 가지는 생활 방식을 의미함. 지역에서의 사회참가, 활동, 고향 복귀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응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2배 즐길 수 있는 풍부한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사회적으로는 사람의 이동을 창출함과 동시에 도쿄 일극 집중을 시정하고, 지역 활성화, 지방 창생, 관계 인구의 확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국토교통성에서는 2021년 3월 9일 토지정책국 지방진흥과를 사무국으로 하는 「전국2지역 거주촉진협의회」를 설치하였음
- 국내 각지에서 2개 지역 거주나 이주 등의 지원 대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거환경이나 일자리의 확보」, 커뮤니티 등에 관한 문제점에 의해 2지역 거주나 이주 등의 희망자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지역의 수용 체제의 정비가 중요해지고 있음
- 본 실증 조사는 2개 지역 거주나 이주 등의 대책을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2개 지역 거주나 이주 등의 촉진에 임하는 NPO법인, 민간사업자 등을 통한 선도적인 2개 지역 거주나 이주 대책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하는 것임
- 2024년 5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응모를 진행하였으며, 41건 가운데 6건이 채택되었음

### □ 적절한 공기 설정 등 근로방식 개혁 추진에 관한 조사(2023년도) 결과 공표 [8/6]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업의 근로방식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기 설정 등의 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대상은 수주자와 발주자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수주자는 건설업법 제27조의37 규정에 기초한 신고된 116개 신고 단체의 회원 기업(1,302개 사), 발주자는 부동산, 운수·교통, 주택 업계 등의 민간 기업(102개 사)을 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는 2024년 1월 1일 시점으로 실시하고, 2022년 12월 이후에 도급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 항목으로서는 주로 민간 공사에 대해 △ 공기 설정 시의 수주자와 발주자 간의 협의 유무, △ 공기의 적정성, △ 공기 변경의 이유, △ 공기 변경에 따라 증가한 공사비의 부담, △ 휴일 취득 상황 등을 조사하였음
- 휴일 취득 상황에 대해 「4주 8셋다운」의 비율은 기술자는 전년대비 9.5% 증가(21.2%), 기능자는 전년대비 14.8%증가(25.8%)하는 등 개선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기술자의 월 평균 잔업시간이 45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은 14.9%, 기능자는 9.0%임. 조사 시점에서 아직 유예기간 중이던 상한 규제에 대한 특별조항을 초과하는 기술자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7.2%이며, 특별조항을 초과하는 기능자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였음
- 건설기업에 관하여 물가 상승 등으로 공사에 영향이 있는 경우 40%이상의 기업이 「발주자에게 협의를 의뢰하지 않는다.」, 「협의를 의뢰해도 응해 주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음. 또한 협의를 하더라도 「모두 계약 변경이 적용되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의 약 2할에 그쳤음

□ **지역가치 공동창출 플랫폼의 킥오프 [8/9]**

- 2022년에 창설된 「지역 가치를 공동 창출하는 부동산업 어워드(국토교통성 부동산·경제국장상)」에서는 지자체나 주민, 타 업종의 분들과 함께 지역 만들기, 커뮤니티 만들기에 대처하거나, 빈집을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지역 가치를 공동 창조하는 대처(창업지원, 거주 지원, 거처 만들기, 복지서비스 등)를 표창함
- 실적과 노하우를 가진 선진적인 사업자 등과 앞으로 임하고 하는 사업자·지자체 등과 「지역 가치 공창」에 관한 지견의 공유·네트워크 만들기의 장으로서 「지역가치공창 플랫폼」을 스타트 하고, 새로운 대처의 유발을 도모함
- 2024년도에 플랫폼 회원을 모집하고, 2025년도부터 공부회나 교류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임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4년 6월분) [8/19]**

- 2024년 6월 원도급 수주액은 7조 158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하였음. 하도급 수주액은 3조 8,354억 엔(전년대비 25.3%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7조 158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2조 1,580억 엔(전년 동월대비 0.4% 증가, 지난달 감소에서 반전)이며, 민간으로부터가 4조 8,578억 엔(전년동월대비 7.6%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7조 158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7,483억 엔(전년동월대비 2.6% 감소, 4개월 만에 감소)이며, 건축공사는 4조 5,056억 엔(전년동월대비 7.5% 증가, 4개월 연속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7,619억 엔(전년동월대비 12.9% 증가, 지난달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임

□ **2024년도 소유자 불명 토지 등 대책 시범 사업의 2차 모집 개시 [8/19]**

- 국토교통성에서는 소유자 불명 토지나 저이용·미이용 토지의 대책,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의 원활화 등 추진 법인의 지정 원활화, 빈 토지의 활용 등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대처에 대해 시범 사업으로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하고, 지원하고 있음. 응모기한은 2024년 9월 17일 까지임
- 「소유자 불명 토지의 이용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자 불명인 토지의 「이용 원활화 촉진」과 「관리 적정화」에 대해서 대응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추진체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소유자 불명 토지나 빈 토지의 이용 원활화, 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정촌 이나 민간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소유자 불명 토지 대책,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 원활화 추진 법인」 지정의 원활화, 빈 토지의 활용 등에 이바지하는 선도적인 대처 등을 실시하는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일반단체·재단법인, 기타 민간사업자 등의 활동에 대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을 통해 얻은 지견과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대상 사업은 ① 추진법인의 지정 원활화에 이바지하는 대처, ② 시정촌 기존계획에 기초한 빈 토지 활용을 도모하는 대처의 2가지가 있으며, 보조대상자는 ①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민간사업자, ② 대학,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등, ③ 지자체, ④ 추진법인임
- 보조 대상 경비는 △ 급료 및 직원수당, △ 임금, △ 보수, △ 여비, △ 수용비, △ 용역비, △ 위탁비, △사용료 및 임대료, △ 공사비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 △ 부동산취득비, △ 고용직원의 퇴직금, 상여금, △ 내구 연한이 1년을 넘는 비품의 구입비, △ 대처에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회의비, △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에 출석하기 위한 교통비, 숙박비, 여비 등, △ 대처 실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재해 등의 처리 비용으로 사용 될 수 없음
- 보조 금액은 1개 단체 당 200만 엔(세금 포함)을 한도로 하며, 대처 완료 시 일괄 정산으로 진행함

□ 목조 주택의 안전 확보 대책 매뉴얼 공표 [8/23]

- 2024년 노토반도 지진에서 많은 가옥이 도괴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 특히 소유자의 대부분이 고령자 가구인 지역에서는 주택의 내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요인으로서 자금력 부족과 동기 부족으로 생각됨
- 이러한 과제에 대해 주택 내진화를 한층 더 진행시키기 위한 대책과 함께 어떠한 저해 요인에 의해 본격적인 내진 개수 등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생명을 지키는 관점에서 지진 리스크를 절감하기 위한 잠정적·긴급적 대책을 포함하는 「목조주택 안전확보대책 매뉴얼」을 작성함
- 매뉴얼은 1장 주택 내진화 촉진, 2장 지진으로부터 리스크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 3장 평소 재해 대비로 구성되어 있음
-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내진화 지원제도로는 ①계획수립과 보급개발, 내진진단, 보강설계, 내진개수 등의 보조, ② 내진개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융자, ③ 세제의 특례조치(소득세액의 특별공제, 고정자산세의 경감조치 등)가 포함되어 있음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동향조사(2024년8월1일 ~ 5일) 결과 [8/26]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 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을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 가격은 모든 조사대상은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 수급 동향에서는 모든 자재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재고 상태는 모든 자재에서 보통인 상태임
- 조사 결과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 건설 자재 동향은 △ 가격에서 모든 자재에서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 수급 동향에서는 골재(쇄석), 아스팔트합재(신재·재생재)가 다소 완화, 이외의 자재에서는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재고 상태는 이형철강, H형강이 풍부, 이외의 자재는 보통인 상태임

□ 국토교통성대신표창기술을 NETIS 추천 기술로 선정 [8/26]

- 국토교통성은 공공공사에서 뛰어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도부터 최신 국토교통 대신표창 기술을 NETIS 추천기술·준추천기술로 선정하고 있음. 이번에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추천기술 11건이 선정되었음
- 국토교통성에서는 NETIS에 등록된 신기술 가운데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획기적인 신기술을 유용한 신기술로서 선정하고 있으며, 본 성에서는 추천기술, 준추천기술, 평가촉진기술을 선정함
- 이번에 선정된 11건의 기술은 「강철 지보공 건설 로봇(KT-230301-A)」, 「록 볼트 시공기계(KT-220225-A)」, 「자주식 바닥판 반송 설치 장치(KK-220073-A)」, 「제설 파이프 온수 고압 세척(HR-220004-A)」, 「유압 햄머의 소음 방지 장치를 사용한 강관 말뚝의 고정 공법(KT-210028-VE)」, 「ScanX(KT-210020-A)」, 「고기능 바닥판 배수관(HK-200001-A)」, 「ANDPAD(KT-180049-A)」, 「오수2차 처리제 자동 첨가 시스템(KT-180039-A)」, 「흡수성 진흙 개질재(TH-160010-VR)」, 「레이저 3차원 계측 시스템(KT-140030-VR)」임

□ 2024년도 인프라 DX 대상 모집 [8/28]

- 국토교통성은 2024년도부터 i-Construction 대치를 심화하는 i-Construction2.0을 발표하고,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임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을 핵심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자본과 공공 서비스를 변화시키는 「인프라 분야의 DX」를 추진하고 있음
- 모집 대상은 인프라 분야에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생산 프로세스의 고도화·효율화, 국민 서비스의 향상, 조직의 근로 방식이나 문화·풍토의 개혁 등으로 이어지는 뛰어난 실적, 특히 i-Construction2.0대처로 이어지는 BIM/CIM이나 ICT시공 Stage 2(기계의 가동 데이터나 영상 데이터 등의 현장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저인력화, 생산성 향상 대처에 대해 모집함
- 인프라 분야 DX 추진에 대해 특히 뛰어난 대처에 대해 국토교통대신상을 수여하며, 이외에 우수상과 스타트업 표창을 수여함
- 대처 내용은 지정 양식에 따라 A4 2장으로 작성해야 하며, 응모 기간은 2024년 9월 30일 12시까지임
- 응모된 내용에 대해 i-Construction ·인프라DX추진 컨소시엄 회원들의 투표 및 국토교통성 내 설치된 인프라 DX대상선정위원회에서 유효성, 선진성, 파급성에 기초하여 수상작을 선정함